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39호 현대불교 29
2011년 6월 8일(음 5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주인공 안에 전부 다 있는데 왜 따로따로 찾습니까!

왜 기복으로 믿지 말라 하시는지요?

문 우리가 어디에든 지극 정성으로 빌면 병이 낫기도 하고 해결되는 일도 많은데 스님께서는 왜 그렇게 기복으로 믿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건지요?

답 인간은 고등 동물이고 또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기는커녕 만물 그냥 뜬구름처럼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면서 이 물바퀴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부딪치고 부딪치고 부딪치고 그러니까 항상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의사가 있고 관세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칠성도 있고 산신도 있고 지신도 있고 용신도 있고 거기 다, 약사도 있고 그 주인공 안에 일체제불이 다 계신 겁니다. 또 일체 중생이 다 거기 있고, 일체 의사가 다 거기 있고 간호원도 있고 전부 있어요 그런데 왜 따로 가서 찾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 약이 수두룩하고 보이지 않는 데 의사가 있고 아니, 별게 다 있는데, 가난하면 가난을 극복하고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관세음 이 있고, 바로 그 주인공 안에 전부 다 있는데 왜 따로따로 찾습니까?

그림을 보고 찾고 그림을 보고 믿고 말을 듣고 믿고 또는 이름을 보고 찾고, 칠성에 가서 빌어야 믿고 길고 약사한테 빌어야 병이 낫고 또 좋은 데로 가려면 지장을 찾아야 하고, 병이 길려면 칠성에 가서 빌어야 하고 또는 무슨 사건이 나면 산신에 가서 빌어야 하고 어린애를 못 낳아도 산신에 가서 빌어야 하고... 도대체 이게 뭐니까? 아니, 만물의 영장이 이전에 귀신들이지, 그게 사람이 귀신 노릇을 하니 귀신이 있는 거지 사람이 귀신 노릇을 안 하고 사람 노릇을 하는데 무슨 귀신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부적이다, 팔자 운명이다 또는 '내일 이사가면 어떨까? '부적을 써다 붙여야지.' '내 몸이 아프니까 이거 어디서 사다가 붙여라'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즉 각 알아야지. 병이 나면 즉각 '어허, 내 몸속의 악업 선업으로 뭉쳐진 과(果)로서 나온 거지. 아이고 그 과로 내 몸에서 나온 건 바로 내 몸 안에서 한마음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다.' 하고 알아야 한 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다가 넘어지면 여러분이 일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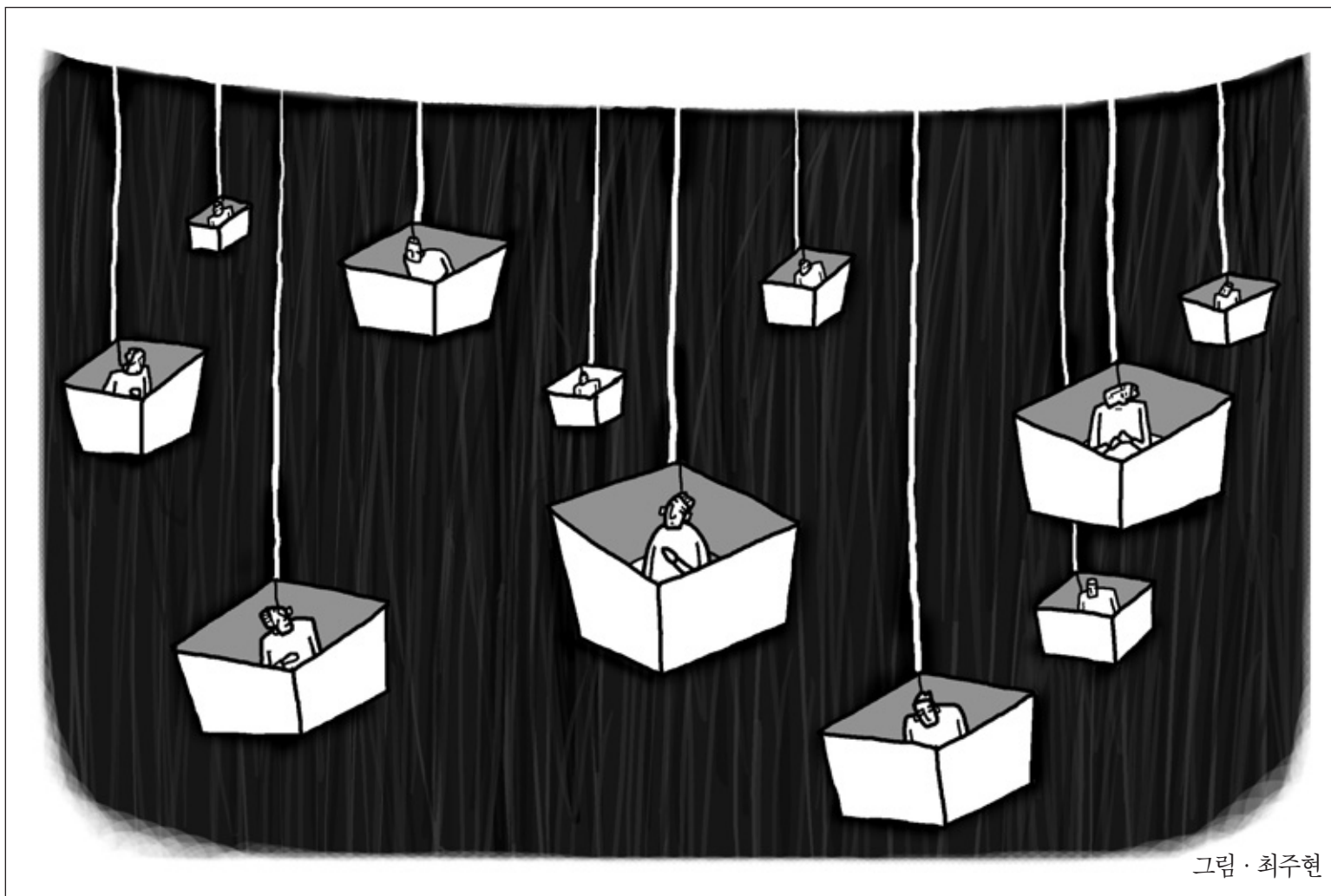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 누가 일으켜 줍니까? 그리고 대신 먹어 줍니까, 대신 아파 줍니까, 대신 죽어 줍니까? 대신 자 줍니까, 대신 똥 뉘 줍니까? 아니, 대신 누가 해 줍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혼자 왔다가 가을이 되면 혼자 낙엽 떨어지듯이 갑니다. 그랬다 다시 금이 세상에 나올 땐 봄이 와야 다시 잎이 피듯이 잠시 중지했다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잠시 중지한 의식이 그냥 남아서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자기가 갈 바를 몰라요. 그래서 나무한테도 지점을 하고 또는 어디 집 짓는 데 가서 지점을 하고 대감도 되고 거기 그냥 어떤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기복으로 믿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저 집으로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죠.

아래도 기복으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심

을 두지 않고 자기 주인공을 모르는 사람 앞에는 집이 반집과 같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자요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자면서 거기서 그 집이 헐어지건 말건 들어와서 그냥 북덕거리고 있다가 또 나오, 또 북덕거리고 있다가 그렇게 때문에 집이 그냥 열면 망그러집니다. 그런 거와 같아요, 이 몸뚱이가.

그러니 이 몸뚱이 속의 그 생명들이, 즉 말하자면 의식 자체가, 탄 데서 들어오는 유전성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도 여기 주인이 없어 가지고 뭐 다 스리지 않으니까 즉, 부모가 없어 가지고 고아들이 한데 모여서 저희들끼리 북덕거리기는 거와 똑 같아요. 지배인이 없으니까. 그대 가지고는 바깥에 있는 거 다 끌어들이서 서로 춤을 추니 이 몸뚱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저이는 뭐, 저런 말이 어디서

저렇게 나오나?' 이러겠지만 이게 진리예요. 전부 내가 없는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침단을 넘어가는 공부들을 하신 분들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참나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한 바가 없이 그냥 자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아, 이걸 왜 몰라요? 거기에 업이나 운명이나 팔자나 이런 거 붙을 사이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도리를 알아야죠.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알보여서 주먹으로 한 대 맞는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아주 너그럽고 저 사람은 참 사람다운 사람이다 할 때는 거기 손 못 댑니다. 그러나 텃밭 텃밭하고 그저 사기나 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주먹 아니라 발길에 차이고 그냥 모가지도 놀리고 그런다고요.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주인 없이, 주모가

없이 내가 흔들린다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방에서 깰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빠져도 코가 깨지죠. 그러니 될 듯해서 하는데도 안되는 거야. 이게 뭐냐? 그게 과(果)다 이거야. 내가 나오기 이전의 인(因)으로 인해서 지금 현상에서 과로 뭉쳐 있다.

이걸 다 녹이려면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다 놔야 그것이, 전자의 그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이 다 녹아서 마음이 전부 한마음으로 뭉쳐져서 천백백화신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속에 있는 마음들이 보살로 화한다 이거죠. 그러니 모든 걸 내 주인공밖에 믿을 곳이 없고 내 주인공밖에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그 믿음과 더불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큰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해!' 하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문 왜 우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타인을 헐뜯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때까지 지내온 습과 인연의 소치일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답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의 의식으로서 산다면 물질세계의 노예고, 그것은 끝간데 없는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죽어야 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알고 죽어야 열반이지, 만약에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죽는 다산도 없이 끝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깨치고 본다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악으로 수없이 나가고 선으로 나기도 수없이 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가 문제죠. 이게 또 묘한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 다스리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맘대로 내가 저걸 꼭 흠쳐와야겠다. 남이야 살건 말건 나는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부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꼭 자기 내면세계의 자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29면에서 계속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 안의 의식들은 그것이 나쁘고 좋고 모르기 때문에 다 따라옵니다. 그 마음이 서면은 악도 그만큼 있고 또는 선도 그만큼 있습니다. 선이 더 많으나 악이 더 많으나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즐겁게 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으로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는다면 그건 독이 될 것이고 약초가 먹는다면 약초가 돼서 인간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뭇잎입니다. 의사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모두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부처도 중생도 풀 한 포기도 다 내 소유로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유가 되어야만, 그때까지는 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오고 바로 그때에 부처님이 뚜렷하고 중생이 뚜렷하고, 하는 일이 이 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지렁이를 볼 때 보기 싫고 징그럽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똥똥도 들어 있고 구더기도 있고, 또는 진드기도 있고 거위도 있고, 촌충도 있고 벼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젠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왜 그렇게 내 몸에 들어 있고 왜 그것이 곧 바로 나왔던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역사를 봐도 미생물의 시대 있었고, 곤충의 시대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공룡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기 전에 그렇게 미미미미들 진화해서 올라오기 위한 그 수련이, 그렇게 수많은 모습을 바꿔 가면서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인간까지 온 것이 그제 바로 정신 수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모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진화해 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한 게 인간까지 올라왔다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맡혀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나, 참나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무수한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끝없는 길입니다.

그럼 인간이 되어 가지고도 또 짐승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또는 독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

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뜻을 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온통 부서지게 하고 남을 해롭게 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틀림없이 미래에 올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일은 현실을 보면 너무나 더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동기를 항상 지켜본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악업선업으로 묻혀 있다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마시고, 누(怒)가 아니 되는 것은 하시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한생각에 밝아지는 도리가

다 화합하게 해 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고서 관하고는 남편한테 다 전후사 얘기를 하세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관하면서 지극하게, '분란 안 나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고 지극하게 관하고선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필쩍 뛰지만 나중엔 다 수그러져요.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무섭잖아 전에 없어도 그래도 남편만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소리는 질러도 속으로는 그 애뜻한 마음과 금강 여미는 마음, 분노와 그런 게 사무쳐도 그래도 살려야 하는 거는, 책임지는 거는 바로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지 않습니까? 불상은 더하고 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내 몸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요, 그 생령은 내 생령이니 모든 게 돌아야 안 깨달아 손을 한데 모아 합장하는 것입니다. 돌아야 안 깨달아는 뜻입니다.

다섯 손가락 다섯 손가락 한데 합치죠? 그래서 '이오온의 진리를 한데 합쳐서 내가 이렇게 하나로 받들다.'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어느 거를 떼어 놓고 어느 거를 위에다 놓고, 어느 거를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냐가 각자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저지러 합니까? 자기가 제일 최고죠. 자기가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그 먼저로부터 더하고 될

공부의 인연을 다시 만나기가 천 년 만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고 했으니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하십시오.

반야심경을 생활 속에서 공부하려면
문) 학생회 회회에 다니는 고1 여학생입니다. 절에 가면 반야심경을 다 외우라고 하고 범회 때마다 외우고 있는데, 저는 반야심경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거나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반야심경을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부해 가야 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 그것을 간단히 말한다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모든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물질로서 나는 건 영원한 게 아니라 모두 부서지고 변하고 죽고 살고 고정됨이 없이 전제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다음에 마음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육체가 움직여 가는 것, 그 삼합이 한데 합쳐서, 내면세계와 모든 바깥의 외면세계가 전부 한데 합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나부터, 내 주인공부터, 겹겹이 자기가 아닌 영원한 자기를 믿어야 하고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자체, 바로 자기 몸뚱이는 자기 마음이 끌고 다니는 거니까 자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자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생각이 없다면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핵이라는 자체가 바로 주인이다 하면, 생각을 내면 벌써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공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핵과 공이 같이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듯 인성이 그렇게 고정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겹겹이가 아니라 그 끌고 다니는 알맹이가 생각도 하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그 장본인 자체가 '주인공' 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없다면 이 세상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믿고 자기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로부터 무의 세계, 유의 세계 포함해서 같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뭐가 뭔지 아리송하겠지만 범회에 나와서 공부하다 보면 차차 이해가 갈 겁니다.

모든 걸 내 주인공밖에는 믿을 곳이 없고
내 주인공 밖에는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믿음과 더불어
어떠한 큰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맡겨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해!'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있으니 이 마음 도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문)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율해부터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돼 보자고 몇 년 전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빛을 내서 시작했는데 그게 값어치는 게 아니라 누적이 돼 갖고 큰 빛으로 남게 돼 버렸어요. 그래도 가게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 보려고 하다 대부분 얻었는데 그게 더 큰 빛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남편이 너무 무서워 가지고요. 불이 나면 눈이 파닥파닥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이 마음공부라는 것이, 기독교를 다녀 왔지만 알겠는데 주저는 당신한테 있어요. 탄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종교를 믿는다고 믿었겠지요? 당신이 없다면 어떻게 종교를 믿는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겼고 허영의 그 눈이 당신을 믿게 놓은 거지요. 그것도 욕심이나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인공, 내만이 가정

절하는 방법과 의미

문) 부처님 앞에 가면 다 누구나 예배를 드리는 데 그 예배드리는 방법이 어떤 분들은 가슴에다가 땀이나 또 그냥 놓고 또 어떤 분은 손을 펴고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데 어느 식이 제일 옳은 식입니까? 절하는 방법과 의미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가슴에 손 대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에서 놓기만 할 줄 안다면 손으로 그렇게 방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티베트에서나 그런 데서는 오체투지를 하는데 이 다리까지 쪽 뻗고선 하죠. 그러나 내면으로 믿지 않고 아무리 몸뚱이로 오체투지를 하고 그렇게 해 봤던들 소용없는 겁니다. 몸 떨어지면 그 하던 행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절하실 때 이 공둥이를 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발을 차분하게 공둥이 밑에 놓고 공손히 양손을 펴서 귀 위로 살짝 올리는 점주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주인공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이 바깥의 부처님을 받든다는 게 아니라 내 자부처를 받든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 주인공을 그렇게 극진히 받든다는 뜻입니다. 법당에 오시면 저 불상이 있

함도 없다는 뜻입니다. 위로 모시다 보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평등하게 나 자체로 돌아 아니게 믿으면 아주 영원히 돌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타의에서 구하고 기록으로 자꾸 믿으면서 시시주주 해도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이라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모두 같이, 무거운 물이라도 같이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인데 각자 이렇게 찾으면서 시시주주 한다거나 이리다면서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만원, 이만원을 갖다 놓고 천원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 마음, 이 한마음 주인공 당신만이, 내가 없는 줄도 당신이 더 잘 알고 있는 줄도 당신이 더 잘 아시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속일 필요는 없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속일 순 없으니까. 손가락을 볼 때에 자기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이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 내면세계의 바로 자기부터 알게 되면 이 세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뿐만 아닙니다. 우주의 섭유를 다 능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리가 터져서. 그러나 이 마음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명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합을 보고 공합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 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7자빌딩1505호(해피시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지압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초혼·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공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해 합장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를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급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정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복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려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름 밑에서 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오는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판매예망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련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풀기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출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진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사명, 거문,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사, 이마용성, 목욕탕, 식당, 정육점, 노래방, 주점, 호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가발, 복권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방